

이스라엘이 풍성한 소출을 저장하는 수장절에 초막에서 지내며 광야를 기억케 하시는 것은 삶과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며, 눈에 보이는 풍성함이 아님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백성으로 세우셔서 이 세상 물질에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이 풍성한 추석 명절이 주님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는 수장절이면서 또한 오직 모든 시선을 능력의 하나님께만 맞추는 초막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 찬송가 |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1.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어나
2.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3.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4.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 주기도문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추석 감사예배

2026. 9. 25.

| 신앙고백 |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 찬송가 |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안에서 행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 기도 | 말은이

| 성경봉독 | 레위기 23:39-43(구약 183쪽)

- ³⁹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닷새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와 절기를 지키되 첫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 ⁴⁰ 첫 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 ⁴¹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 ⁴²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 ⁴³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 설교말씀 | 우리 집 식탁에서 기억하는 광야의 은혜

올해도 변함없이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합니다. 논밭에는 곡식들과 과일들이 주렁주렁 보기 좋게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에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합니다.

만약 우리 인생길에 이렇게 늘 풍성한 소출과 수입만이 주어진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까요? 아니면 풍성한 소출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여 스스로의 힘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며 살아갈까요? 어쩌면 이 둘 사이를 오가며 때로는 승리의 기쁨을, 때로는 실패의 좌절을 맛보는 삶이 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냥 추측만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삶이 늘 이런 반복이었고, 지금 우리네 삶 또한 그리 다를 바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석이라는 풍성한 절기를 맞이하며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이 있습니다. 풍요로움 자체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풍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시는데, 그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풍성함을 어떻게 기념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념의 방식이 이스라엘이 초점을 맞추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 기념은 추수 감사의 축제로 우리의 추석과 동일한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바로 일곱째 달에 토지의 소산 거두기를 마치고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절기입니다.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기념하는 시간이니 그 행복이 최고에 달하는 시간이요, 축제의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를 기념하는 명절의 이름이 의도적으로 두 가지로 주어집니다.

첫째 명칭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출 23:16) 이 명칭은 말씀 그대로 밭에서 거둔것을 저장한다는 의미를 그대로 살린 것입니다. 그 다음 명칭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레 23:34). 이 명칭은 절기 기간 내내 초막을 짓고 생활하는 방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추수를 하여 저장한다는 의미이니 수장절은 이해가 되는데, 왜 초막절을 기념하여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소출이 넘쳐나고, 삶을 풍요롭게 해 줄 열매들이 가득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막에 거주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생활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지키고 돌보셨는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42, 43절)

가나안 땅의 소출을 바라볼 때에, 광야 시절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가나안땅과 광야는 정반대의 땅입니다. 거칠고, 황량하고 농사를 지을 수도, 길쌈을 할 수도없는 곳,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 모든 것이 공급되는 장소가 되게 하셨습니다.